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예멘 반군, 10대 소년병 징집

국제앰네스티, “3년간 1500여 명 징집된 것으로 추정”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가 10대 소년을 병사로 징집하고 있다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예멘 반군이 소년을 징집하려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종교학교를 통해 유인하고 있다.”며 “죽을 수도 있는 전장에 내몰기 위해 이들의 어린 시절과 가정을 빼앗는 행위는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면담한 16세 소년병의 가족은 “10대 소년들이 실제 소총을 쓰고 군복을 입는데 호기심이 많은 점을 악용해 유인한다.”며 “반군은 최전선에서 병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1명씩 징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병이 전투에서 죽으면 가족의 반발을 막으려고 반군이 유족에게 월급을 주고 아버지에게 총을 한 자루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예멘 내전 3년간 징집이 확

인된 소년병 수만 1500명에 달한다며 대부분이 반군에 징집됐고 금전적 보상이나 사회적 신분 상승을 약속하면서 모집한다고 말했다. [GNPNEWS]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신명기 24:7)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시편 120:2)

기도 | 하나님, 예멘 반군이 호기심 많은 10대들을 유인해 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소년병이 전투에서 죽으면 가족의 반발을 막으려고 월급을 주고, 총 한 자루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형제를 죽음에 내모는 이 악을 제하여주시고 거짓에 속은 예멘의 다음세대의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 차트의 일상

벽 대신

나뭇가지로 열기설기 엮은 칸막이, 뿌연 흙바닥 위에 돌 몇 개를 세워 만든 아궁이 위에 저마다 솥을 올려놓고 앉아있는 아나네들의 부엌이 정겹다. 무엇을 끓이든지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 오르는 솥 앞에 국자를 들고 있는 젊은 아나네와 옆에서 기름에 빵을 튀겨내고 있는 여인의 웃음이 환하다. 부지런히 반죽을 달궈진

기름에 넣고 있는 손길도 분주해 실 틈이 없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솥 두어 개와 그릇 몇 개뿐. 재료도 양념도 별것 없는 단출하기 그지없는 모양이지만, 이 허름한 부엌에서도 남편과 자녀들을 먹이고 싶은 여인들의 마음만은 넉넉하게 전해진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양식으로 주어 살게 하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완전한 만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 은혜를 누리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시편 107:9)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0)

씻조각들이 우연히 모여 자동차가 만들어졌을까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 봐.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 달란 말이야.”

볼 수 없어서 믿지 못한다는 당신, 정말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부정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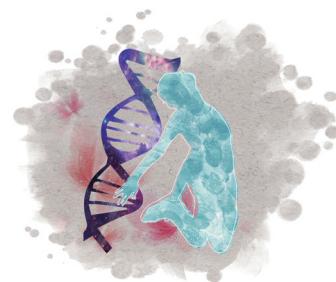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소리나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무한히 큰 우주도 볼 수 없습니다.

아메바에서 우연히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적도 없이 아메바에서 진화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계획과 목적 속에서 당신을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두신 그 설계도가 바로 DNA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생물체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

습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인간의 과학이 만들어낸 손톱만한 반도체 칩에 책 2만권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면, 당신의 손바닥 세포 한 개 안에는 1억 배 더 많은 DNA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물건에 설계도가 있듯이 더 복잡한 물건들은 더 고차원적 두뇌에 의한 더 복잡한 설계도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을 설계하신 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보가 절대적 지혜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지 않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연히 씻조각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어느 장소에 내려앉으면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계자가 있는 줄도 모르셨나요? 당신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고장 난 당신이 예수를 통해 다시 고쳐지기를 바라십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인생인 줄 알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GNPNEWS]

INSIDE

02 뉴스 | 중동

이집트 시나이반도 기독교인들 피난 행렬

03 월드 뷰 |

세속적인 뉴스에만 관심 쏟는 미디어, 성경적 삶은 관심 없어

05 인터뷰 | 정혜정 전도사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목숨을 걸만한 복음을 붙잡았는가?”

08 뷰즈 인 박스 |

오스월드 챔버스의 산상수훈 선교완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중동

이집트 시나이반도 기독교인들 피난행렬



▶ 북 시나이 엘 아리스에서 탈출한 이집트 콥트교인의 모습(출처:ahram online 캡처).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피난길에 나섰다. 최근 3주간 무려 7명의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의해 잇따라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시나이 반도의 항구도시 이스마일리아 시(市)에서 복음주의교회 성도들과 엘 아리스에서 공부하던 200명 이상의 학생을 포함 적어도 3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스마일리아 시는 과거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많이 찾던 관광명소였지만 이제는 ISIS의 거점지로 전략해 이집트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됐다.

피난 행렬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배관공인 카멜 요세프씨가 ISIS의 총격에 쓰러지면서 가속화됐다. 카멜 요세프씨는 엘 아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됐다. ISIS의 크리스천을 겨냥한 테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카멜 요세프씨는 그 7번째 희생자였다. 희생된 기독교인들은 모두 콥트교 신자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로 9400만여 명의 이집트 인구 중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아시아

中, 기독 서적 판매한 한국계 기독교인 7년형

중국에서 금지한 기독 서적을 구입, 판매했다는 이유로 라오닝 성(遼寧省)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5명이 실형을 구형받았으며 이중 목사 2명에게는 7년형이 구형됐다고 박해 받는 크리스천 감시기구 차이나 에이즈가 밝혔다.

차이나 에이즈는 “중국 내 증가하는 기독교인을 겨냥한 인권 유린과 부당대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기독교인의 경우 대다수가 한국계 중국인으로 모두 등록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 정부는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억압하며 공산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기독교인을 박해해 왔다.

올해 1월 중국 서남부 구이주이성(貴州省)에서 가정 집회 목사가 ‘국가기밀 누설죄’로 갖은 고문에 시달린 후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5년 12월에는 리빙스톤교회의 양 후아 목사가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를 불시 검문하던



▶2015년 중국 정부에 의해 봉쇄된 광부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출처: China Aid).

중 자신의 컴퓨터가 당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다 구속된 바 있다. [GNPNEWS]

한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 느헤미야52기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24시간 또는 일주일 연속기도로 참여하는 느헤미야52기도가 3월부터 시작됐다.

기도24·365본부(이하 24·365본부)는 지난 2월 23일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유기성)에서 느헤미야52기도 설명회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24·365본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사용하던 기도정보 외에

느헤미야52기도정보 특별판을 제작, 기도시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24·365본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진정한 교회 개혁과 부흥을 꿈꾸며 교회가 한 주 또는 일정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52일간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쌓아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2008년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시작된 느헤미야52기도는 교회나 기도모임, 가정, 개인의 참여로 매년 연인원 수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 010-5424-4641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2.12~3.1)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필리핀 경찰관 190여 명, 마약 양성반응...전원 해고될 듯

필리핀 경찰 당국이 경찰관 190여 명의 마약 투여 사실을 적발해 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마닐라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페 가르 트리암블로 필리핀 경찰청 내무국장은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나 마약 양성반응을 보인 경찰관 99명에 대한 해고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어떤 직업으로도 자신의 죄 된 실존을 가릴 수 없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필리핀 경찰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에 완전한 만족되는 심자가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지중해 건너다 숨진 난민, 작년 한 해만 4579명

지난해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가려다 물에 빠져 숨진 난민이 457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유럽연합(EU) 국경관리청의 말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나님. 자유를 찾아서 터전을 떠났지만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난민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심자가로 완성하신 자유의 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서 성전환 청소년 인형 등장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토너 돌 컴퍼니’가 10대 트랜스젠더 소녀 재즈 제닝스(16)를 모델로 한 인형을 만들기로 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제닝스는 7살이던 2007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적인 혼란과 성전환 사실을 밝히면서 ‘최연소 트랜스젠더’로 유명해졌다.

생명에 들어온 죄가 온 세상을 덮을 기세로 확산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세태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육체와 영혼 모두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원형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심자가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길 간구합니다.

ISIS “이집트 기독교도, 가장 좋은 먹잇감” 선전영상서 위협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IS)가 20일(현지시간) 작년 12월 발생한 이집트 콥트교회 자살폭탄 공격의 범인을 자처하는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집트 기독교도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약 20분 길이 동영상에서 ISIS는 “이집트 콥트교회가 ISIS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고 말했다.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생명의 충만함을 이집트 기독교인들에게 채워 주셔서 ISIS까지도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3월 2주~3월 3주

3월 2주(3.13~3.18)

▶경기 광주 / 문광교회 (최**) 010-3380-5781

3.13~14, 16~17(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3.13~17(19시~24시)

▶광주 남구 / 십자가복음교회 (김**) 010-9883-2347

3.14~17(14시~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3.16~17(22시~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3.17(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3월 3주(3.20~3.25)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은선) 061-271-9981

▶경기 구리 / 큰빛교회 (서**) 010-3388-2574

3.20~24(07~23시)

▶강원 강릉 / 은광교회 (박**) 010-7439-7020

3.20~21, 23~24(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3.21~24(14~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3.24(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3.24~25(22시~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070-4803-9026~7, 010-5424-4641 www.prayer24365.org

세속적인 뉴스에만 관심 쏟는 미디어, 성경적 삶은 관심 없어

선을 위해 새것 거절하고, 거룩함 위해 인기를 거절해야



▶ 배리 블랙 목사(출처: Denison forum 캡처)

최근 미국 기독교문화평론가 짐 데니스 박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데니스 포럼에 도덕적 가치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이같은 사회 풍조에서 기독교인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배리 블랙 목사는 미국 상원에 소속된 채플린이다. 채플린은 기관이나 학교 등 특정 공동체에 소속된 목회자를 말한다. 그는 최근 기독교채널 CBN에 출연, 아프리카 지도자 13명을 예수님계로 이끈 정치인을 소개했다. 상원에 소속된 정치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독교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주류 미디어는 이같은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다.

미국 정치인, 아프리카 지도자 회심케 한 뉴스는 외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인기 모델 미란다 커와 에반 스피겔(스냅챗 대표)이 왜 혼전 관계를 갖지 않느냐'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두 사람은 1년간의 교제 끝에 지난해 7월에 약혼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혼전 관계를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란다 커는 "약혼자가 매우 보수적"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유명 커플은 '성(性)'에 대해 성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특별하다는 이유로 시사잡지의 헤드라인이 됐다. 이 두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최근 필자는 텍사스대학교 캠퍼스 입구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의 지붕을 지지하는 아치에 새겨진 문구를 보게 됐다. "국가는 국민의 덕과 지성에 비례해서만 자유롭고 행복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텍사스의 아버지 스테판 오스틴의 말이었다. 학문적 성과로 유명한 대학교 캠퍼스에 새겨진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덕이 지성보다 앞에 언급

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미국 문화는 그렇지 않다. 껄껄에 따르면, 동성 결혼, 혼외자녀,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 간의 성관계, 복제인간 및 일부다처제를 수용하는 미국인의 수는 각각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미국인의 73%가 우리의 윤리적 가치가 타락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두 명의 산파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는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 반면 두 명의 산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심브라와 부아, 두 여인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어 '영원'에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용기와 순종으로 말살될 뻔했던 유대 국가가 존속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6장에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염려하며 슬퍼하셨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렘 6:13)" 오늘날에 대한 비유는 15절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진다. "그들이 가장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

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었드러지는 자와 함께 었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6:15)." 오늘날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 '영원'에 영향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선을 위해 새로

운 것을 거절하고, 거룩함을 위해 인기 있는 것(대중적인 것)을 거절해야 한다.

당장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될 것(눅 6:48)"이다. 기초를 놓는 시기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이 필요해지기 전에 선을 선택해야 한다. 문화는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당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 각종 미디어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출처: Denison forum 캡처).

현장 리포트

헤브론선교대학교 3월 개교...신입생 2년간 집중영성훈련 돌입



단과대학 중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선교대학은 교육선교사 배출이 목표

열방을 섬길 경건의 사람을 양성하는 헤브론선교대학교가 3월 7일 오전 10시 충남 서산 헤브론선교대학교에서 개교 및 입학예배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헤브론선교대학교는 총 세 차례에 걸친 입학설명회와 입학전형을 통

해 지원한 30여 명의 신입생과 함께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기숙학교로 운영될 이 학교는 입학생들이 첫 2년간 집중영성훈련을 통해 복음과 기도의 기초훈련

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는 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학생들은 2년간의 훈련과정 이후, 현재 준비중인 다양한 단과대학에 진학해 열방 곳곳에서 민

음으로 섬기는 전문인들로 양성될 전망이다.

단과대학으로는 이웃사랑대학, 커뮤니케이션대학, 복음기도신학대학, 교육선교대학, 선교영어대학, 예술선교대학, 정보기술대학 등이 있다.

한편, 이같은 단과대학 중 교육선교대학은 예외적으로 헤브론선교대학교 개교와 함께 바로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선교사 양성을 시작한다. 교육선교대학은 이 대학이 인정한 초중고등학교 연령대의 교육과정인 헤브론원형학교와 복음사관학교를 비롯해 관련 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아 3년간의 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교육선교대학은 학생들을 모두 기독교사로서 양성해 헤브론원형학교 교사 및 국내외 기독교회에서 교육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NPNEWS]

기획 | 파키스탄 선교 역사 (5.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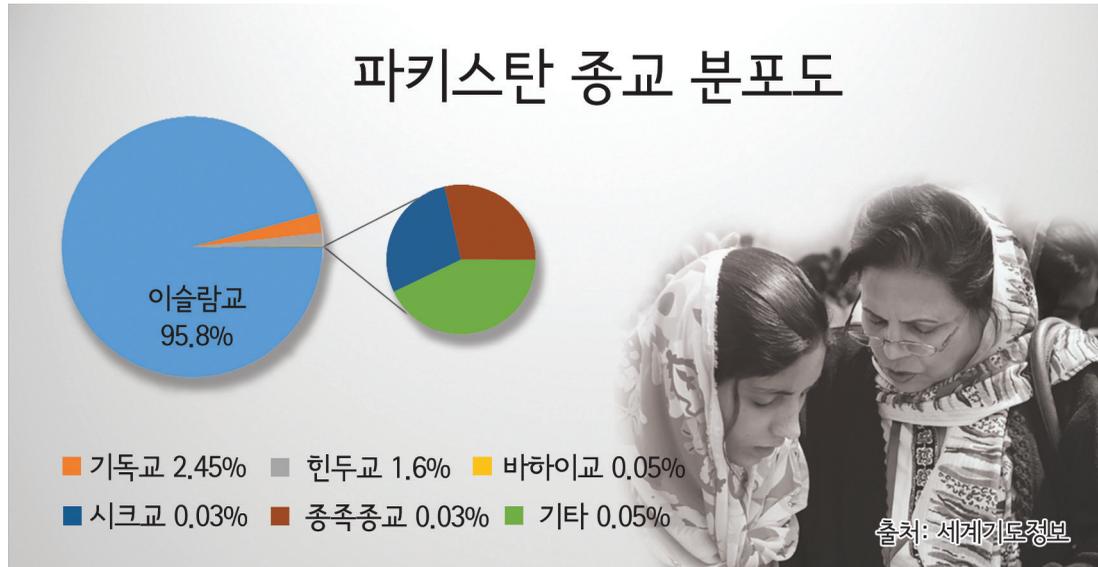
기독교인들의 희생으로 힌두교와 시크교도들이 회심

무슬림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역사는 그리 폭 넓게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3% 수준. 그것도 19세기 후반 불가촉천민 계급인 '추하라'를 통해 집단개종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후의 상황을 파키스탄에서 30년간 사역한 영국의 프리다 캐리 선교사(Church Mission Society 소속)가 정리한 자료를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파키스탄 교회는 1900년부터 30년 동안 수적인 증가뿐 아니라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해 갔다. 그러나 1930년 이후로 이같은 수적인 증가는 없었다. 추하라와 다른 불가촉천민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했던 몇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선택하게 했던 요소가 사라지고

마하트마 간디는 지역 정부와 맞서 불가촉천민의 해방과 하층계급의 신분을 상승시키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힌두민족주의자들과 힌두교는 아리아 사마지(Arya Samaj)와 같은 힌두개혁운동을 통해 불가촉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달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또 내정자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찾는데 발 벗고 나섰다. 인도



전역에서 수천에 이르는 불가촉천민들이 일어나 기독교를 지지했던 이 대부흥 운동은 힌두교로 하여금 오랫동안 멸시해왔던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한편 1947년 펀자브 지역의 분리독립은 펀자브 교회들을 인도와 파키스탄의 새로운 두 국가로 분리시켰다. 미국합동장로교(UP)선교회 지역 일부와 미국장로교(AP)선교회 지역, 감리교선교 대다수 지역은 인도쪽으로 남게 되었다. 페로제푸르(Ferozepur)와 구르다스푸르(Gurdaspur) 지역은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이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아 파키스탄쪽으로 편입시키려고 했으나, 당시

식민지 총독이었던 마운트버튼 경이 반무슬림 입장을 취하자 국경위원회는 이 지역들을 인도 국경으로 넘긴 것이다.

펀자브의 분리 독립으로 인한 변화

계속되는 분단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 오히려 종교를 뛰어넘어 여러 부상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생명을 걸고 도왔다. 이로 인해 카스트 제도 속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이 힌두교와 시크교를 떠나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 지역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기 전 많은 기독교인들은 힌두교인이나 시크교인의 소작인이었거나 노동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1947년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이 떠나고 난 뒤 농지는 작은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동부 펀자브에서 온 난민들에게 분배되었다. 새 이주민들은 분배 받은 토지를 통해 자립해 갔지만 기독교인들은 실직상태가 되어버렸다.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지만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은 마땅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추하라 계층을 통해 청소부나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

198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은 130만 명의 1.6%로 당시 연간 인구성장

3.1%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1990년대 중반에는 기독교인이 2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조사는 오랫동안 축소 보고 되었을 것으로 기독교인들은 여기고 있다. 실제 기독교인의 수는 인구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았다. 대략 전체 인구의 3%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200만 추정

기독교의 가장 큰 단일집단은 로마 가톨릭인데, 이들은 기독교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제일 큰 개신교 교파는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파키스탄교단(The Church of Pakistan)이다. 이 교파는 영국 성공회와 감리교, 그리고 루터교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파의 연합으로 시작되어 1970년에 출범했다. 그다음으로 규모가 큰 교파는 UP선교회와 AP선교회에 의해 설립되었던 연합장로교와 라호르교회협의회가 1990년에 합병해 파키스탄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of Pakistan)가 등장했다. 연합장로교와 라호르교회협의회 두 교단 모두 1968년 교파의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다. 1970년에 연합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감리교 교단과 같이 탈퇴 장로교 교단들에도 여전히 많은 교인이 있다. 그밖의 교파로는 구세군, 개혁장로교회협의회 그리고 오순절 등이 있다. <끝> [GNPNEWS]



선교 통신

교회 전기를 몰래 도전(盜電)하는 성도의 전기요금을 내주며...

이곳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며 서툰 러시아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는 것이 없어 '땀 땅에 헤딩'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주로 어린이 사역에 집중했는데, 지금은 5명의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았고 신학생 3명이 교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른들은 별로 없고 아이들과 청소년이 중심이지만 이웃에 사는 한 부부와 학부모 중 두세 명이 드문드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회의 전기를 승압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성도님이 1년간 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 전기를 몰래 끌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전압이 높아지면 전기를 끌어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편

해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큰소리를 지르며 거짓말을 하고 급기야 자기 집 개를 풀어 아내가 물리기가 지 했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이후에도 그 가정은 계속해서 몰래 전기를 끌어 쓰다가 전열기구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사정이 딱해 임시로 교회에서 선을 연결해 전기를 공급해 주었지만, 그녀가 우리를 피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생겨 어렵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들이 밤마다 괴롭힌다느니, 정교회에서 교회를 못 가게 했다느니,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한다느니 하면서 교회 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싸우다 맞아서

머리를 꺾매고 오른팔이 아파 움직일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잘못된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 피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술과 마약에 빠져 사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떠나라고 하자 남편이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구급차가 오는 등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저희는 이 성도의 밀린 전기세를 모두 지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전기가 다시 공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도와 주일 점심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되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선교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나가며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계속된 배움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시간이 가도 우리는 이곳

에서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긴 외국이라는 어떤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람들과도 이토록 어렵고 낯선데 말입니다. 나의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신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GNPNEWS]

러시아=W, L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앉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혜정 전도사. 주님께는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녀를 만났다.

- 어렸을 때 환경은 어떠셨나요?
 “불신가정에서 태어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목사님 딸이어서 교회에 놀러 가기도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싶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점수에 맞춰 대학진학을 했는데 그곳은 기독교였어요. 덕분에 난생 처음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졸업이 다가오고 다른 친구들은 취업준비에 바쁘는데 제 마음은 항상 허전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고생을 한 것도 아닌데, 무언가 잡히지 않는 답답함과 공허함에 시달렸어요. 비구니가 되어볼까 싶어 절에도 가보고, 수녀가 돼볼까 싶어 성당에도 가봤어요. 20대가 그랬어요.”

-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인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결혼을 하고, 믿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돈에 전전긍긍하며 세상 가치로 살았죠. 어떤 계기로 전복 익산으로 이사하면서 가게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공허함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찾아온 한 여자 손님의 인도로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목사님을 만났을 때 마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난 듯했어요. 목사님의 모든 말에 순종했죠. 심방가자고 하시면 가게 문 닫고 아기도 업고 바로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자식에 끌리듯 이전과는 다른 믿음생활이 시작되었고, 어느 날 새벽예배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후 새벽예배를 놓치지 않고 사모함으로 다녔어요. 오로지 새벽예배에 다니고 싶어 온전도 배웠어요.”

가게 손님의 인도로 교회 출석

- 우연한 만남이 은혜의 씨앗이 됐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 정도 지날 무렵 신학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무원인 남편이 전주로 발령을 받아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신학 과정을 마치고 사역자로 생활하면서 어린

이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무렵 한 어린이 선교 단체를 만나 훈련받고 전도하면서 다음세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나이 먹으면서 전임사역자가 되어버렸고, 내 열심으로 달려온 것 앞에 지쳤죠. 영적인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 그 갈증함을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예전에 친분이 있던 분들이 소개해주셨던 한 선교단체의 훈련 과정이 생각났어요. 몇 년이 지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감사님의 메시지도 검색해 듣게 됐어요. 정말 듣고 싶었던 복음적인 메시지였어요. 한 1년 정도 그분 말씀을 계속 찾아 들었어요. 그러다 그 단체의 선교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어요.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훈련과정은 한 달이 지나면서 훈련에 집중하려고 사역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생각과 관점들이 강의시간에 계속 충돌했어요. 내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뭘지 모르게 끌려갔어요.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고 싶었어요.”

- 어떤 내용들이 받기 어려웠셨나요?
 “그때까지 저는 선교를 재정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복음, 믿음,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능력은 다 제쳐놓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었어요.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선교라고 느껴진 것이죠. 용어와 의미도 달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나로부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런 인식전환이 제게는 쉽지 않았어요.”

- 그런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선교훈련은 마치기 전에 해외로 2주 정도 아웃리치를 떠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일정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제 신발 끈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쳐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검진을 위해 50분 동안 기계에 들어가 MRI 촬영을 하는데 마치 관에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복음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훈련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니 졸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사흘쯤 지

났을 때 결단하고 약을 끊고 훈련 과정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아를 추구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 특별히 결단하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때 주님은 제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로 미움과 증오의 뿌리를 비춰주셨어요. 엄마와의 관계였어요. 엄마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되니 아예 외면하고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거죠. 주님이 그런 저의 악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그 이후 아웃리치 기간에도 주님은 팀원과 관계에서 어려워하는 저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강박한 자’인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아웃리치 통해 깨닫게 된 나의 실존

- 그 이후 삶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을 것 같군요.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후 남편과 말씀을 의지하며 구하는 말씀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믿음이 없으며 가르치려 하고 마음속으로 무시해 왔던 것과, 내 안에 묻어두었던 깊은 상처들을 고백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도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함께 살면서 남편은 별로 불평을 한 적이 없었지만 실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죠. 이후 남편도 동일한 복음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 남편 박종진 집사와 함께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혜정 전도사(은혜샘교회)

-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군요.
 “저희 부부는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자주 신앙문제로 다투었어요. 서로 자기주장이 강했고, 자기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했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만난 후 남편과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변화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저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깨우면서 말씀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부부가 자기 허물을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주님이 가정 안에 이루어 주셨죠.
 - 놀라운 변화네요. 또 다른 일도 있을 것 같네요.
 “2015년 10월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전에 사역할 때도 항상 주변에서 개척하라는 권유를 들었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4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라는 기도모임에 참여하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기도시간이 너무 은혜였고, 이 기도만 하면 누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일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자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교회 이름을

구했는데, 제 이름 안에 있는 은혜(惠), 우물 정(井). 은혜샘 교회를 하라해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어요.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2015년 10월 18일. 교제하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이 집안에 교회로 허락하신 공간에서 남편과 함께 말씀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오직 기도하며 순종

- 정말 주님이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네요.
 “은혜죠. 주님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기도 가운데 제 심령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사춘기 시절 형성된 제 마음의 원망, 불평, 불만, 미움, 분노 같은 뿌리의 근원들도 말씀기도중에 박살났어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파르르 했던 것들이 말씀기도할 때 빛 앞에 드러났고, 말씀에 부딪혀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 의지라도 안 되던 것들을 성령께서 친히 일해 주셨어요. 복음훈련을 받은 후 6개월 동안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24·365라는 기도도 거의 안 빼먹고 했고, 말씀기도도 놓치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고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전에 했던 막연한 기도와는 달랐어요. 지금도 무엇을 하든 말씀부터 구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순종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사사시대에 빛난 복음 (3)

“목숨을 걸만한 복음을 붙잡았는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룻 1:16~17)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룻의 고백이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꼬인 인생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졌다. 기가 막힌 고난을 겪는 동안 안 될 것을 안 될 것으로 깨닫고, 내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아는데 고난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그 고난은 축복이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어

머니 나오미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신과 그의 약속에 대해 간간히 들었던 룻은 여호와에게서 목숨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었다.

살아가는 동안 목숨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여차피 죽을 인생, 죽음에 게 쫓겨 다닐 것인가, 아니면 목숨 걸 가치와 대상을 좇을 것인가. 영원히 달리 될 수 없는 참된 결론, 진리를 붙든 룻은 진리에 운명을 걸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을 보면 진리를 소중하게 만난 자들의 태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갔는데, 아무리 말려도 그를 엘리야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였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

하겠나이다”(왕하 2:2) 결국 나중에 엘리야가 두 손을 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왕하 2:10) 무슨 말인가? 0.0001%도 돌아갈 여지가 없는 결론 난 마음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복음 앞에 선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엘리야를 발견한 엘리사처럼, 나오미를 발견한 룻처럼 진리의 복음에 마음의 닳을 내렸는가? 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지 아는가? 틈만 나면 돌아서려 하고, 핑계를 대고 결론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에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돌아갈 여지를 끊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망설이는 이유는 자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려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좁은 길은 더욱 좁아 보이고, 험한 길은 더욱 험해 보인다. 그러기에 아무나 못 간다.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룻은 진리를 결론 삼고,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예비하신 구속자 ‘고엘’(Goel)을 만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한치도 다를 바 없다. 믿음의 질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룻의 믿음은 동일하다. 이 이하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2016.4 메시지 정리)<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Nehemiah 52 Prayer 2017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30년된 사랑의 전통과 성령의 열매를 위한
기도 24-36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

[느헤미야52기도정보집 특별판]

마침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52기도 특별판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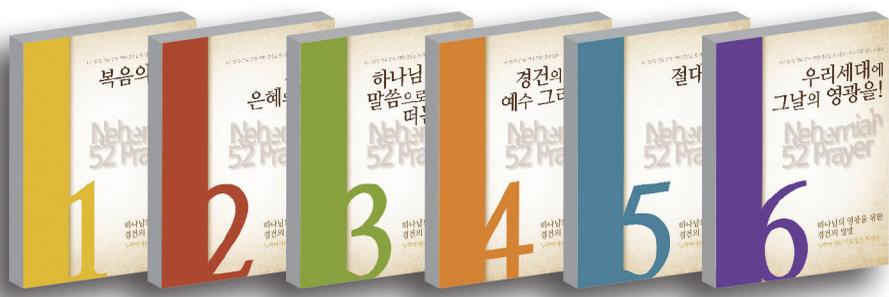
이제 기도의 순종만이 남았다. 사탄과의 전쟁을 끝내고 선교완성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기도하자.

이 땅의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여 선교완성을 이루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아는 자로 무릎을 꿇자!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

원수들이 낙담하도록 기도의 불을 일으키자!

- 「초대의 글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중에서-



1권 : 복음의 영광 2권 : 오직 은혜의 복음 3권 :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는

4권 :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5권 : 절대 믿음 6권 :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

세트 : 43,000원

날권 : 8,000원

구입문의

야킨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순종만 하면 주님이 하세요”

- 전주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잘 다녔는데도, 제가 복음 앞에 서니 아이들의 죄 된 실체가 보였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혼을 냈겠죠. 그러나 이제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전주지역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캠프를 섬기면서 다음세대 안에 표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썩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 같아서 눈물이 나오. 얼마 전에는 캠프에서 한 아이가 “하나님 믿기 싫은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데, 그냥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내 아이 같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망이 안 돼요. 결국 주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GNPNEWS]

- 말씀과 기도면 정말 충분한 것 같네요. 끝으로 바람이 있으실텐데 나눠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인 된 실존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

어요. 그래서 우리 다섯 식구가 복음 앞에 일어나서 함께 느헤미야52기도를 하고 싶어요. 작년까지는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이들을 정해서 기도해왔지만, 올해는 매달 삼 일을 결단하고 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사탄의 공격도 정말 많았지만, 언제나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을 자랑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계획도 없어요. 머리가 백지에요(웃음). 순종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혼자 싸울 때는 지치고 원망되었지만 지금은 남편과 같이 달려가니 너무 좋아요.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전에 주위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붙어만 있으면 산다.’라는 말이 뭘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이 어떤 단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이란 걸 알게 됐어요.” [GNPNEWS]





“선교훈련을 마치고 일상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복음을 만난 후, '100%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표적이나 성령체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런데도 '그다음은 어떻게 살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북한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즈음 한 선교단체의 선교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6개월간 진행되는 훈련 초반에는 적응하기 너무 어려웠다. 스무 명 정도의 훈련생 중 대다수가 자매들이었고, 형제는 내성적인 성격의 63세의 최고령자, 나 한 사람뿐이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협



소한 공간에 또 강의 수준은 왜 이렇게 높은지... 내 시간의 대부분을 훈련 진행 과정에 맞춰야 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었다.

쉽지 않은 6개월의 훈련 과정

집에서 학교까지 100km의 먼 거리를 오가며 몇 번이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했다. 후에 고난이 없으면 결실도 없다는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시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선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워나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강사님들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가 서로 조건 없이 연합하고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배웠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을 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

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훈련 막바지에 있는 약 2주간의 해외 아웃리치 현장에서 허락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믿음의 삶에 관해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다. 7명 정도의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선교사님은 형편이 어렵고 부족해도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이 친히 물질을 공급하실 때마다 감사하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다.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

“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답해드리고자
헌신하려던 의무감에서
해방되었다.
”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께 자주 질문했다. 그리고 깨닫게 됐다.

상상하기 어려운 선교현장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답해드리고자 헌신하려던 의무감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훈련을 통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교회를 섬길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사람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더욱 순종하며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 [GNPNEWS]

전상석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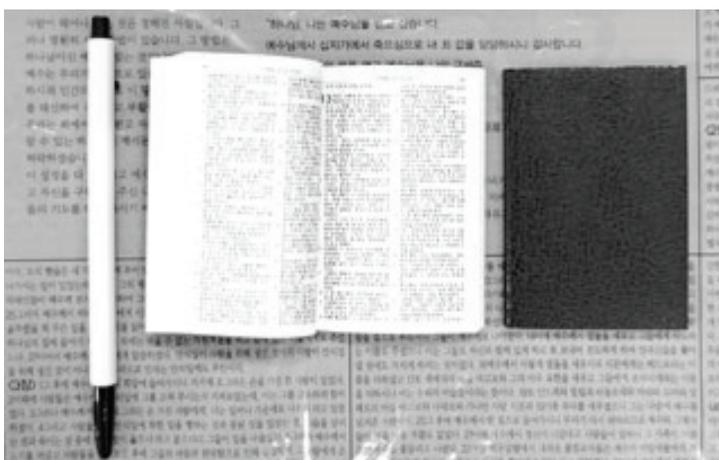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영하 30도의 날씨, 매서운 바람이 몸속을 파고들었다. 내린 눈이 쌓였다가 얼어붙어 길이 몹시 미끄러웠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역자의 인도를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앞서가던 사역자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의 계단을 몇 층 오르더니 문을 두드렸다.

강마른 북한 여인의 방문

조금 후에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조용한 웃음으로 문을 열어 준 청년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함께 간 사역자는 그 청년과 몇 마디를 나누더니 방문을 열고 불을 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마른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로 인사를 하며 앉았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여인은 천천히 대답했다.



▶ 북한에 밀반입하는 '북한말 성경' 남한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북한 주민들의 요청에 전문가들을 모아 번역했다(출처: 모퉁이들선교회).

“내래 작년에 돈을 벌해보려고 친척방문을 왔었습니다. 그때 친척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자꾸만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올해 다시 넘어온 겁니다. 기래 여기 선생님을 만나 꼬박 20일 동안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배우고 싶어 목이 탔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야~! 아 그거야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요. 내래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

갑니다.”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던 여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심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남편이 목회자 되기를 소망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엄하게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지요?”라고 여인에게 물었다.

“얼마 전에도 00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발각되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에

서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과 한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남편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기래내 내래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꾸만 우리 남편을 목회자가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세게 듭니다. 돌아가면 여기 선생님에게 와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중국으로 왔지만 이미 그 여인에게는 돈보다 말씀을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뒤로하고 집을 나서는데 어느새 여인의 손이 발목까지 오는 나의 신발에 가 있었다.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듯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겨주었다. 그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그녀의 삶에 이미 깃들어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 남긴 채 문을 나서는데 여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내래 2, 3일 있으면 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오시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더 들려 달라요.”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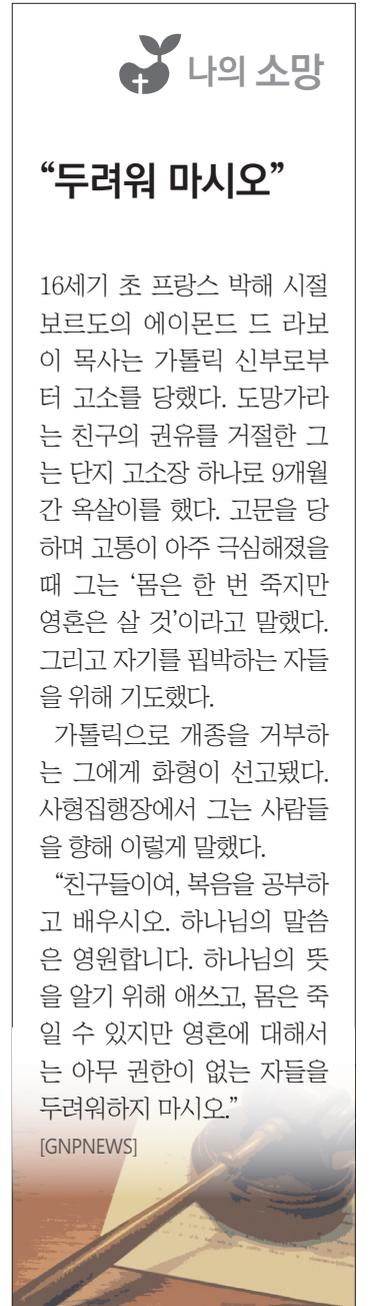
“두려워 마시오”

16세기 초 프랑스 박해 시절 보르도의 에이몬드 드 라보이 목사는 가톨릭 신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도망가라는 친구의 권유를 거절한 그는 단지 고소장 하나로 9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고문을 당하며 고통이 아주 극심해졌을 때 그는 ‘몸은 한 번 죽지만 영혼은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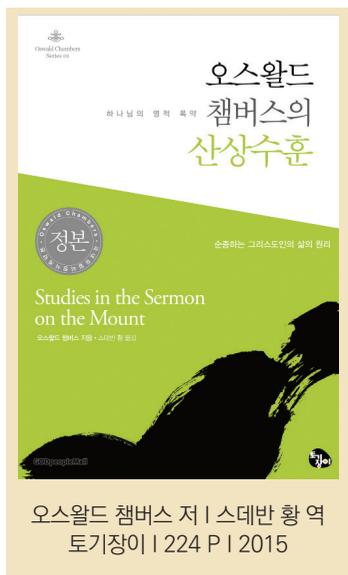
가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하는 그에게 화형이 선고됐다. 사형집행장에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GNPNEWS]



선교완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던 어린 시절, 마태복음 5~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살아야 할 교훈과 가르침으로 받았다. 초년병 목회자 시절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마 5:39)”는 상황이 주어졌다. 당시 열등감으로 분과 혈기를 주체할 수 없었지만 나의 오른 뺨을 친 한 자매 앞에 나는 왼뺨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때 내 마

음 안에 넘치던 “자기 선(善)과 자기 의(義)”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대면할 수 있었다.

40세가 되던 해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인 행위의 기준으로만 이해했던 내 존재에 절망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게 되었다. 당시 나는 그의 글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십대 시절 스펠턴 목사의 설교로 주님을 만난 이후 43세에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때로는 갈등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고자 고민했고 인내했다. 때로는 자신도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기도 하고 열정적인 헌신으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자아 절망이라는 잣대미로 끝나버리기도 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비난과 오해와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의 산상수훈 메시지는 그래서 단지 성경 강해나 이루지 못할 이상만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 영광이 아닌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증인의 고백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윤리, 도덕의 행위 수준이 아니기에 이 말씀은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면, 그는 반드시 절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천국의 첫 번째 법칙인 ‘심령이 가난 한 자’는 하나님의 의(義)를 이룰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역경을 만나 우리의 무지로 인해 어리석음의 목이 부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와 그분께 손을 벌리게 된다.” 예수님을 향한 그럴듯한 결단을 하

기에 앞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산상수훈은 당시 유대인들이 저주로 여겼던 것을 “복”이라고 선포하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산상수훈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 내용이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천국의 가치답게 살려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대하면 세상 가치에 찌들어 있는 우리 옛사람의 모든 개념이 무너지고 부서져 우리 삶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원칙과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산상수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훈련된 힘, 선한 습관, 지속적인 자기 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빛어가는 삶의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분을 위해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산상수훈은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실재를 이야기 하고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의 삶이 메시지가 되었다.

우리의 목적도 그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선교가 완성되기를,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 것도 그날 맞이하게 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기도했다. 그 기도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했고 선교완성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정복되어야 할 옛사람의 가치와 습관, 생각의 길, 사소한 것까지도 애용하게 했다. 그런 나에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은 ‘선교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었다. [GNPNEWS]

성미경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큰아이가 어린 동생을 올라타자 화가 난 남편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다.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일 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주님은 두 명의 영혼을 인도해주셨다. 비록 성도는 두 명밖에 없지만 교회는 쉼 새가 없다. 신학스터디와 성경원어모임 등의 정해진 교회 사역, 동역자들과 기도모임, 길거리 전도, 또 두 아이의 육아와 살림으로 인해 거의 24시간 공동생활체제로 남편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마음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뭔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냉동실 문을 열었다. 그때 4살 큰아이가 8개월 된 동생에게 올라탔다. 순간 남편은 눈앞에 쪼뽏 얼어있는 빵을 그대로 아이에게 집어던졌다. 남편은 “아빠가 동생 밟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라며 아이를 다그쳤다. 아이는 덜덜 떨며 나에게로 왔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위로해주세요.” 이 말은 아빠 손이 닿지 않게 위로 높



이 안아달라는 뜻이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 일어났고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먼저 아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다. “응.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식탁을 잡으려다가 동생한테 넘어졌어요.” 억울하게 혼난 아이의 마음과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파왔고, 아이 양육을 믿음으로 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화가 났다.

그날 밤 어느 때처럼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기 전 4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가 왜 하유한테 빵을 던졌어요? 엄마, 으앙. 아빠 싫어. 아빠 빵 가지고 집에 가라고 해! 으앙.” 아이를 향한 불쌍함과 안타까

움이 넘쳐날수록 남편을 향한 정죄와 판단, 미움 또한 넘쳐났다.

나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이의 놀람과 상처만 생각하고,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할 네 남편은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는구나.” 순간 남편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견고 있는지,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지체들 앞에서 매년 자신의 연약함을 깨트림으로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이 육아의 영역에서 남편이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며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사탄에게 속아 발 빠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남편을 도와주세요. 훈육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되어 행할 수 있도록, 육아의 시간에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아이가 반응해 주지 않을 그때에도 믿음으로 훈육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자리, 오직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또 얼마나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고 속으며 착각하고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치열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로써는 불가능한 새 생명의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게 하시는 이 영광을 맞본 이상 더욱 이 삶을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GNPNEWS]

양혜원 사모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2. 10 ~ 3. 1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경선 김사희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승수 김은영 김정대 박숙자 박순서 서영숙 안병윤 안수경 윤경석 윤한별 이경희 이란영 이복길 이수원 이영심 이용웅 이현희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조상국 조희광 지석범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돌교회 순회선교단 시은교회 시흥시제교회 신성교회 열매교회 예향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